

“첫 거래 고객에 최고 1.9% 특별금리” SC제일은행 ‘일복리저축예금’ 이벤트…모집 한도 2천억 원



SC제일은행은 6월 30일까지 일복리저축예금(MMDA)에 1억 원 이상(최대 20억 원 이내)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신규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 잔액에 대해 최고 연 1.9%(세전)의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벌였다.

이 상품은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으로 매일 잔액에 따라 복리로 이자를 지급한다.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객 자산가들이 돈을 맡기는 파킹통장으로 활용된다. 모집 한도는 2천억 원이다. 특별금리 제공 기간에 예금 잔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특별금리 적용 기간이 종료되면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가 적용된다.

기본 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이면

연 0.4%,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연 0.3%,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연 0.2%다.

박종관 담보여신·수신상품부장은 “국내외 경제 및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여유자금 또는 일시 부동산자금을 짧은 기간만 예치해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이 많다”면서 “이번 행사는 단기자금 운용상품을 찾는 고객이 입출금통장의 편리성과 고금리 혜택을 동시에 누릴 기회였다”고 말했다.

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컨택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①